

50년, 끝맺음의 독백



김영민
오류동물병원 원장
kymvet@hanmail.net

대안의 수의학과

서울이 고향인 나는 1957년 충북 보은의 6·25 피난지에서 하나뿐인 실업계 고등학교 축산과를 졸업했기에 대학도 축산학과를 희망했으나 당시 서울에는 축산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없었기에 유사학과(?)로 수의학과를 택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 8·15, 중학교 때 6·25, 피난지에서 고등학교, 그 과정이 정상적일 수 없었다. S대 수의대에 입시원서를 접수했는데 동시에 서울시립대 수의학과 특차입시에 추천되었다. 난 S대 입시일에 시립대 입시 면접을 받아야하는, 즉 양 대학 중 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장학금을 주겠다는 시립대를 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의 힘을 덜어드리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나의 대학과정도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전후 수복 후에 서울이란 누구나 없이 어려운 여건이니 나 역시 가정교사, 대안학교 출강 등 나의 공부 외에 등록금 마련을 위한 시간의 쪼갬이 뒤따라야 했고, 4·19를 전후한 혼란한 시기에 학생회장(학도호국단 학생위원장)으로 4·19모의에 동참하면서 경찰의 미행, 소환 등에도 시간을 빼앗겨야 했으니 황금같은 대학시절에 교양서적 한권 제대로 읽지 못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

수의학과 졸업과 동시에 성적에 따라 모교에 조교발령을 받은 것은 당시의 취업난에 비하면 동기생들의 부러움을 살만했다. 조교로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의 공부도 좀 더 할 수 있었으니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1961년 3월 9일 수의학과 졸업, 동년 4월 1일 조교발령. 그러나 조교근무 1개월반, 5·16은 병역미필인 나에게 사표를 요구했다.

동물병원 개원

31개월의 병역을 필하고 선배의 소개로 서울의 서쪽 끝 오류동에 65년 7월 9일 오류 동물병원을 개원했다. 대로변에 초가집 몇 채가 전부인 말로만 서울인 변두리다. 진료대상은 낙농우목장과 제법 규모가 있는 양돈장이었다. 병원내 진료 보다는 왕진에 의한 병원운영으로, 당시로서는 그리 흔치않게 "오토바이"에 의한 왕진으로 빠른 진료를 원하는 축주와 시간을 아껴야 하는 나에게도 좋은 이동수단이었다. 축주의 대부분은 역시 동물을 좋아하는 순수한 사람들이란 나의 선입견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으니 그들을 대함에는 역시 같은 방법의 순수함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믿고 그리한 것이 오랜 임상에서 얻은 고객확보의 지름길이었다고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한편 대동물수의사는 소동물 진료가 쉽지 않고, 소동물수의사는 대동물 진료를 못한다는 말은 외견상 표시되지 않지만 일선 임상에서는 불문율(?)로 통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순회형식으로 목장왕진을 끝내고 병원에 돌아오면 소동물 진료를 위한 축주들의 기다림을 외면할 수 없었으니 지금과 달리 축주들 입장에선 병원을 선택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희귀 존재의 동물병원이었고 수의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이 지나면서 내가 과연 수의학에 얼마나 근접해있나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 많은 자리를 잡게 된다.

대학교육이란 것이 오늘날에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전공에 이제 첫 장을 연 것에 불과하므로 각자 원하는 분야로의 계속공부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학술적인 깊이를 늘리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입학하고 zoonosis에 관해 한 학기 수강을 했으나 투자한 시간에 비해 임상에 별 도움이 안 되기에 아쉽지만 자퇴하고 말았다.

한편 군의 선후배 관계로 인연이 된 수의서적을 판매하는

농경사의 한창수 사장으로부터 많은 서적을 받은 것이 임상에서 어려움을 줄이는 지름길이 되었다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또 Waltham Forum에서 구입한 비디오테이프 40여개는 특히 시각적으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교재로 지금도 가끔 돌려보는 나의 애장품으로 대동물수의사로 소동물을 진료하는 어려움에 전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진솔하게 말할 수 있다.

50년의 에피소드

임상 50년에 에피소드도 많이 있지만 진료에 직접 관련된 것은 후일로 미루고 진료외의 내용 중 오래 기억되는 것 몇 가지만 기술코자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 축주와의 순수한 접촉에서는 동물 진료의 본래 목적 외에 가족관계 상황이 생각 이상으로 긴박하고 중요한 이슈가 된 경우도 있었다.

※심한 자폐증의 7세 H군은 그 맥의 2대 독자다. 초등학교 입학할 앞두고 부모들의 근심이 말이 아니다. 나의 병원에 우연히 오게 된 H군의 엄마에게 애완견의 입양이 절대적인 도움을 줄 것이란 Waltham의 Human-Animal Interaction의 내용을 강력히 소개한 결과로 H군을 지금 명문대 3학년,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준비 중에 있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케 했으니 보람 있는 일이다.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부부만이 살고 있는 C씨 부인, 자기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면서 심한 우울증으로 종종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1층 잔디밭이 발 앞에 정원으로 착시에 빠진단다. 정신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그런 현상은 투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끔찍한 내용이다.

"치와와" 한 마리를 구해 주었다. 이 녀석이 부부가 등지고 자는 이불 속 부부 사이로 파고들어 그로인해서 부부가 마주 보고 잘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원만한 부부생활로 우울증에서 벗어나 웃음을 되찾고 인생후반의 새 삶을 즐기고 있다.

※이혼을 하고 중3짜리 외동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A여사. 그 귀한 외동딸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 밤늦게 들어오니 엄마로서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애완견의 입양이 필요하다 는 나의 권유에 알레르기 때문에 안된다나? 알레르기는 습성에 의해 극복내지는 면역 형성이 가능함을 여러 학설로 강력

하게 설명한 결과 "시츄" 한 마리를 키우는데, 직업상 지방으로 이주를 했지만 지금은 함께 사는 딸보다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애완견 "애다"의 진료를 위해 먼 거리를 마다않고 오는가하면 그 외동딸은 "애다"의 엄마노릇과 함께 홀엄마의 훌륭한 친구이자 효성스런 딸 노릇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사한 일로 은둔과 고독에서 사회성을 회복한 노인 부부, 가치 있는 웃음의 삶을 되찾은 중년의 부부, 학교생활에 적응 못하고 PC방을 전전하던 학생이 모범생으로 탈바꿈한 예 등 순수한 관계로 맺어진 인연은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고객의 확보가 가능하며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오던 고교생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의 손을 잡고 함께 병원에 오고 있으니 한번 맺어진 고객과의 인연의 중요성과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된다.

그런저런 내용이 구전되어서일까 행정기관의 천거로 81년, 90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장의 표창을 받았으니 임상 수의사로서 영광스런 일인 줄 안다.

대한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에의 회상

■ 대수(1970년대)

나는 대수의 수의무이사로 지금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축산업자들의 자가 진료 성행이 우리들 수의사의 영역 침범 차원을 넘어 항생제 오남용 등 사람들이 먹는 축산물로써 문제가 제기되어 축산업자들과 공식적인 대담으로 자가 진료가 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피해를 홍보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 차원의 철저한 법적보호가 없는 한 실효가 없음을 실감했다.

■ 법제윤리위원(1996~98, 2002~04)

수의사의 신조 3개항은 수의사회의 공식적인 행사 서두에 참석 전 회원이 선서형식으로 낭송하고 있다. 우리들 수의사의 다짐이란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책임, 의무, 긍지로 표현된 3개항의 각 항별 맺음말의 초안은 "~이바지 하여야한다.", "~의무로 삼아야한다.", "~다짐하여야한다."라는 문구로 제정을 위한 최종심의를 상정되었다.

법제윤리위원회는 수의계 고위공무원,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었는데 나는 유일하게 임상수의사의 자격으로의 참석이었다. 어느 위원 누구도 그 초안에 이의가 없었으나 나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다.

"~하여야한다.", "~삼아야한다.", "~다짐하여야한다."란 표현은 굳이 사전적 의미를 빌리지 않더라도 분명 타성에 의한 강제성의 표현이기에 현재 사용 중인 "~이바지한다.", "~의 무로 삼는다.", "~다짐한다."로 바꿀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선택된 것이니 초안과 현재의 것 사이에 말뜻의 뉘앙스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수회지 편집위원 겸 학술홍보위원(1984-87): 참으로 힘든 시기였다. 교수님이나 연구기관의 원고는 청탁에 의해 투고가 비교적 쉽게 수집되었으나 임상에 응용하기로는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학술적이어서 극히 일부 회원 외에는 별로 읽히지 않았고 즉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임상기록을 원하는 많은 회원들의 기대만큼 임상수기투고가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원고확보가 힘들었다.

결과적으로 원고확보는 학술홍보위원들에게 책임할당(?)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임상분야 원고를 맡게 되어 원고마감일에 맞추려면 밤늦게까지 원고정리와 자료수집에 몰두하였고 3년여의 임기를 끝내면서 대수 40주년에 나의 최다 투고가 인정되어 대수회장의 공로상을 받았다.

대수의 수의무이사, 법제윤리위원, 학술홍보위원으로서 내 나름 의욕적으로 일했으나 유일한 임상수의사로서 나의 목소리는 그리 클 수 없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 서수(1984~90)

그 시작은 서대문 신촌의 대수사무실 한편 구석의 자그마한 책상하나로부터다. 서울의 동물병원 모두 합해야 30여곳, 회장1인, 총무1인의 단출한 조직으로 신규회원의 등록, 회비의 징수 등이 업무에 전부였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회비납부를 독려했다는 고인이 되신 어느 전임 회장님의 일화는 지금도 원로들 모임에서 가끔 회자되고 있다.

대수회관의 현 분당으로의 신축이전으로 서수는 서교동의 2개의 구획으로 된 임대사무실로 옮겨 독립된 사무실과 세미나실 겸 회의실을 갖추고 비로소 그 활동도 활달해졌으며 이제는 독립된 회관을 갖게 됐으니 장족의 발전으로 자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 서수약품의 창립(1989~93)

한수약품의 주 고객이 사실상 서수회원들임에 대안으로 서수약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 운영의 메리트를 서수발전, 즉 서수회원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서수약품의 창립기본 취

지였다.

나는 서수의 학술이사, 부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창립되는 서수약품의 초대사장에 천거되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그 초창기에는 항상 힘들기 마련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의 집무에 그것도 병원운영의 틈시간을 이용한 업무처리에는 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뒤따랐다. 차량의 기름도 내 돈으로 넣어야 하는 무보수의 집무는 그야말로 철저한 봉사정신이 없으면 도저히 안되는 상황이었다. 일년여의 경과로 어느정도 안정기에 들 무렵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동물병원과의 거래내용이 매 건마다 소액거래인 것을 세무당국에서는 탈세의 한 수단으로 오해를 한 것이다. 세무조사 공무원들에게 소액거래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미숙한 점에 도움을 청했으나 전문가들은 아마추어의 완벽(?)에서 흠을 발견하고 일정액을 추징하고야 만다.

의욕이 꺾이고 실망스럽고 경영에 어려움이 뒤따를 정도로 자금난도 있었으나 나의 개인적인 2,000주의 증자로 정상경영의 길을 터놓고 나의 4년간의 봉사가 끝나고 지금의 흑자 서수약품으로 성장·발전했으니 그간의 봉사한 분들께 박수를 보낸다.

해외교류

■ 일본도쿄수의사회 40주년 기념식

회장단의 자격으로 몇몇 회원들과 함께 참석한 것이 당시의 구라바야시, 오히라 부회장 외에 몇몇 원장들과 지금껏 교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자주 그곳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그들의 병원규모는 우리들의 것과 별 차이 없으나 우리가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

■ 대만수의사회 17기, 18기 대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당시의 회장 외 몇몇 임상회원들과 왕래가 이어지고 있다. 대륙적인 기질인가 병원규모는 대체로 크나 시설배치에 짜임새가 좀 더 치밀했으면 싶었다. 병원 프로그램의 IT화는 우리보다 몇년 정도 앞서 시작했으나 지금은 그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

■ 싱가포르 Waltham Forum 세미나

영국 본사의 수의사들로부터 서구의 학술적인 정보와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노하우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 현

지에 도착해보니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선 나 혼자 참석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역시 현지 수의사 Lennie 형제와 홍콩에서 온 영국수의사 Holmes와도 교류가 유지되고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교류보다는 쌍방간에 임원의 교체가 있더라도 조직간에 유기적으로 공식적인 교류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임상 50년의 마감

말같이 그렇게 간단치 않게 어려움과 즐거움이 항상 함께했다. 그 초창기 3평짜리 월세 점포에서 연탄난방으로의 출발을, 45평 내 소유 건물의 병원 현실과의 비교란 별 뜻이 없지만 세월의 흐름에 고객들의 시각도 많이 예리해진 만큼 나는 고객들보다 조금은 더 예리해져 있어야하는, 즉 가벼운 긴장으로 무장하고 있는 기본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전반적인 불황이 우리 분야에도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는 항상 호황과 불황의 쌍곡선이란 것은 상식이다. 호황에는 그 경제적 여력을 병원시설 개선에 투자하는 기회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황에는 그 주어지는 여유의 시간을 내 것으로 활용하는 요령이 필수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로 문제를 풀고, 계획을 짜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습득하는 시간의 안배로 실력 강화의 찬스도 살림과 동시에 보편화된 메이저는 더욱 살리고 새로운 마이너를 개발하여 병원 경영의 플러스 요인을 늘리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

병원수의 증가는 우리들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이니 고무적인 현상이나 역으로 병원간에 불가피한 경쟁이 유발된다. 그러나 그 경쟁은 패자를 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상생의 경쟁, 즉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한 경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분야가 더욱 더 발전되고 그 발전은 우리 모두의 권익신장으로 이어진다고 굳게 믿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의 50년 임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이제 곧 임상 일선에서 물러난다.

헌데 “100세 시대”란 말, “인생 이모작”이란 말이 머릿속에 남는다. “재능기부”란 말도 일반화되어있다. 그것을 위해 문화지도사, 방과 후 교육지도사의 자격을 받아왔으니 이제 재

능기부로 인생 이모작을 계획한다. 그래야만 100세 시대를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글을 끝내면서 이 글은 50년 경험을 토대로 생각나는 대로 형식에 구애됨 없이 썼기에 개인적으로 일상적인 이야기로 좀 진부하게 느낄 수 있겠으나 큰 뜻 없이 가볍게 읽어 주실 호의를 기대할 뿐이다. ♡